



**도 건설산업 간담회**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오인철)는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어명소)이 마련한 도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범위 확대 추진

### ‘50억 이상→7억 이상’ 법안 개정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 비중을 높이기 위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 지역본부에 따르면 LH 중앙본부는 내년 1월부터 LH에서 발주되는 모든 전기·정보통신공사를 대상으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이란 공사물량을 수주한 타 지역 업체가 지역 내 업체와 동시 착공을 해야 하며 일정한 최소지분을 통해 맺는 공동계약을 뜻한다.

50억원 이상에만 지역의무 공동도

급이 이뤄졌던 현행법상에서 내년 1월부터 제도가 개편, 7억원 이상부터 적용된다. 7억원 이하에는 여전히 기존 지역제한 입찰제도로 진행된다.

LH는 지난해 전국 발주물량을 기준으로 50억원 미만인 전기공사는 55%, 정보통신공사는 8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SOC사업에 비해 전기·정보통신공사가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참여율이 저조했던 업체들에게는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진 것이다.

LH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법안이 개정되면 지역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돼 건설경기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재규기자



**도 건설산업 발전 간담회**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 오인철)와 원주국토관리청 (청장 어명소)은 27일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확대 등 도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내년 발주계획 어쩌나’... 예산안 처리 촉각

## 국회 처리시한 나흘 앞으로

주요 발주기관들이 내년 예산안 국회 처리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년 발주물량 계획 수립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 SOC 예산이 크게 줄었지만 증액 여부에 따라 추가 발주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이런 가운데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도 발주하지 못해 내년으로 이월되는 물량들이 내년 SOC 예산 감소폭을 상당부분 보전해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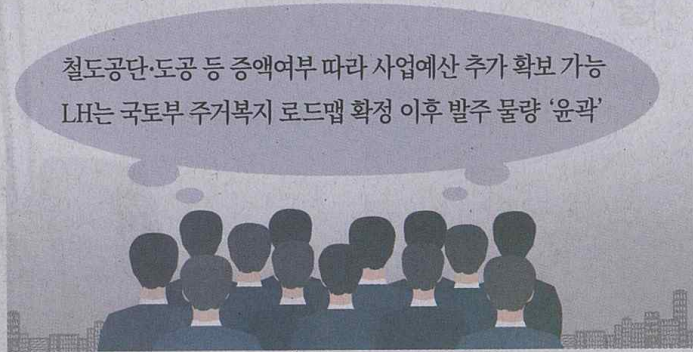
27일 국회와 각 발주기관 등 따르면, 내년 국회 예산안 처리시한(12월2일)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는 12월2일이지만 이를 넘길 수도 있어 발주기관별 내년 물량 확정은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당초 내년 SOC 예산을 올해(22조1000억원)보다 20%가량 적은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넘겼지만, 최종안은 정부안보다 다소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철도건설(5594억원), 도로건설(4984억원) 등 부문



철도공단·도공 등 증액여부 따라 사업예산 추가 확보 가능  
LH는 국토부 주거복지 로드맵 확정 이후 발주 물량 ‘윤곽’

에서 정부안보다 2조3679억원(13.4%) 늘어난 SOC 예산안(20조838억원)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이런 가운데 기관마다 다르지만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도 발주하지 못해 내년으로 집행이 이월된 물량이 많은 기관은 물량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철도공사와 도로공사는 이월 물량이 많은 편에 속한다. 올해 예산 중 내년으로 이월되는 SOC 예산은 2조4916억원으로 △철도 2조185억원 △도로 3300억원 △도시철도 353억원 △수자원 230억원 등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올해 사업현장 민원, 인허가 지연 등으로 발주가 연기된 물량이 많다. 내년 SOC 예산이 줄더라도 이월된 물량까지 합하면 내년 발주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장항선 개량 2단계 1,2공구’(각 2000억원)로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이달 발주 예정이었지만 내년으로 연기됐다.

이 밖에 이월된 철도 SOC 예산은 대구선 복선전철(1855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2878억원), 부산~울산 복선전철(2222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1555억원), 포항~삼척 철도(4003억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 발주가 유력한 사업으로는 △월교~판교 복선전철 1·2·3·6공구(약 9200원) △인천발 KTX 직결사업(약 3543억원) △수원발 SRT 직결사업(1955억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1·6·9·12공구(8881억원) 등이 있다.

이들 사업 중 내년 예산폭에 따라 발주 물량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철도공단의 설명이다.

도로공사도 내년으로 집행을 연기한 물량이 제법 있다. 구체적으로 △고속국도 제29호선 안성~성남간 건설공사(4개 공구·1조1510억원) △수도권 제2순환(김포~과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5개 공구·1조1769억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4개 공구·7299억원) 등이다.

이들 물량은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집행한 남겨놓은 상태. 연내 집행 예정이었지만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으로 결정해 내년 상반기로 집행을 미뤘다. ‘새만금-전주간 4개 공구’는 전체 8개 공구 가운데 절반은 올해 말에 발주되고 나머지 절반은 내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K-water가 내년 발주 예정인 주요 물량은 이월 물량을 합해 △에코델타시티 2단계 4공구(공사금액 1350억원, 실시설계 기술제안) △송산~시화 MTV(멀티테크노밸리) 연결도로 건설공사(1720억원, 단기) △봉화천댐 건설사업(332억원, 순수내역 입찰) △원주천댐 건설공사(317억원, 시공 책임형 CM) 등이다.

한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부가 이번주 발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내년 발주 물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상준기자 newspia@